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논의를 위한 공공도서관 대출 통계 분석

Analysis of the Loan Statistics of Public Libraries for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 Lending Right

이 흥 용(Heung Yong Lee)*
김 영 석(Young-Seok Kim)**

〈목 차〉

I. 머릿말	1.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현황
1. 연구 배경	2. 학습만화 대출 현황
2. 연구 목적	3. 대출도서 저자별 현황
3. 선행연구 개관	4. 대출도서 저자의 국별 현황
II. 연구 방법	5. 대출도서 출판사 현황
III. 공공도서관의 대출 통계 분석	IV. 맺음말

초 록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전국 820개 공공도서관의 대출통계를 분석하여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보상금 산정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대출 분석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정보나루'가 제공하는 11억 7,830만 건의 대출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공공도서관 대출 통계 분석을 통해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상위 125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도서들을 대상으로 저자별 현황, 저자의 국별 현황, 일본 저자의 현황, 출판사별 현황, 학습만화의 대출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대출, 책 대출, 빅데이터

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Public Lending Right has increased in Korea. This study aims to collect valuable data necessary for the discussion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 Lending Right by analyzing the loan statistics of 820 public libraries nationwide for five years from 2014 to 2018. In order to analyze the loan statistics of Korean public libraries, 1,178,300,000 big data provided by 'Data for Library' operat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ere used. Through the analysis of loan statistics, 125 books were identified, which have been lent the most in the last five years. The study examined the 125 books to find out who are authors and Japanese authors and authors' nationality. The study also analyzed publishers and number of lending of cartoons.

Keywords: Public Lending Right, Public library, Public library lending, Book lending, Big data

*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 서기관(leehey@nanet.go.kr) (제1저자)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skim7@mj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9년 8월 20일 •최초심사: 2019년 8월 28일 •제재확정: 2019년 9월 2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217–238,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9.217]

I. 머릿말

1. 연구 배경

우리나라의 도서관법(2018)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서관은 오랫동안 대여(貸與, rental)가 아닌 대출(貸出, lending)이라는 방식으로 도서관 자료를 공중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자료 무료 제공 원칙은 특히 공공도서관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좋은 자료를 무료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들이 자료를 차별없이 쉽게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도서관 자료는 공공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서관법 제33조(사용료 등)는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료와 관련된 도서관법시행령(2019)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에 의하면 자료 대출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도서관기준(2013)은 ‘공공도서관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라고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자료 무료 대출 정책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도서관 자료의 무료 제공 원칙을 가지게 된 계기는 1850년에 영국 정부가 공공도서관법(Public Libraries Act)을 제정하면서부터다. 동법은 공공도서관과 관련하여 대원칙 두 가지 즉, ‘세금에 의한 도서관 건립’과 ‘자료의 무료 이용’을 정하였다. 학자들은 이 원칙에 의해 건립·운영된 도서관을 현대적인 개념의 공공도서관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외의 공공도서관은 지난 170여년 동안 도서관 자료를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해 왔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이 무료 대출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도서관을 운영해 왔던 것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단체와 출판 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등에서의 자료 무료 대출을 문제 삼으며 공공대출보상권(PLR: Public Lending Righ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도서관에서의 책 무료 대출로 인해 서점 등에서의 책 구매가 감소하고, 그 결과 출판사의 수입이 감소하고 저작자 등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2019년 기준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한 전 세계 35개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 도입을 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첫째, 도서관에서의 책 무료 대출은 실제로 서점 등에서의 책 구매 감소를

가져오는지, 둘째,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실제로 많은 저자에게 보상금 혜택이 돌아가는지 등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첫 번째 쟁점은 이홍용(2019)에 의해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된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한 고찰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대출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특정 기간 동안 공공도서관을 통해 얼마나 많은 책이 대출되었으며, 또한 어떤 저자와 출판사의 책이 얼마나 많이 대출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대출보상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제로 보상금 혜택을 받게 될 저자나 출판사는 얼마나 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 공공도서관의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도서관의 소장자료 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35개국 중 6개국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는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의 자료 대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인데 21개국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는 소장자료와 이용자 수 두 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인데 한 나라가 적용하고 있다. 한편 나머지 7개국은 그 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미결정된 상태이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 중 도서관의 대출통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국가가 가장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공공도서관의 대출 현황을 저자와 출판사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자료 무료 대출로 인하여 저자 등과 출판사가 저작물 판매기회를 잃을 수 있어 그 기회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동제도 운영의 핵심 내용은 ‘근거 법률’, ‘공공대출보상금 재원’,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과 ‘보상금 수혜 대상자’ 및 ‘보상금 지급 대상자료’ 결정 등이다. 여기서 ‘보상금 수혜 대상자’는 저작물을 발간하는데 기여한 사람 즉, 저자, 삽화가, 출판사 등을 말한다. ‘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는 저작물의 종류, 즉 도서, 시청각 자료, 전자자료 등을 말한다. ‘보상금 산정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출 횟수, 소장 책수, 이용자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의 ‘보상금 수혜 대상자’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고 ‘보상금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즉, ‘보상금 산정기준’의 대출횟수를 기준으로 ‘보상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상위 125권의 저자는 누구이고, 그 저자의 국적은 어디인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3호)

지 그리고 출판사는 어디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125권 중 학습만화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 조사·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공공대출보상권이 도입된다면 도서관에서의 책 대출이 특정 저자와 출판사로 편중되어, 결과적으로 일부 저자와 출판사만 공공대출보상권의 보상금 혜택을 많이 받고 나머지 저자와 출판사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즉 특정 저자와 출판사에게 보상금 지급이 편중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밝히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개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대출통계를 분석하여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의 효과성 검증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대출통계를 조사·분석한 연구와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연구논문을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공공도서관의 대출통계를 조사·분석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허선과 정연경(2014)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지역 2개 공공도서관의 대출기록 분석을 통해 이용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자는 조사 대상 2개 도서관의 대출통계 754,198건을 분석하여 두 도서관의 주이용자 계층, 도서관 방문 횟수, 주로 이용되는 이용 시간과 자료의 주제 등을 파악하였다.

김완종(2015)은 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유행이 국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진단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대출통계를 분석하였다. 그는 국립세종도서관에 있는 ‘공공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플랫폼’을 통해 우리나라 303개 공공도서관에서 수집된 18,711, 453건의 대출기록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동일하게 공공도서관의 대출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김완종의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김완종은 대출통계를 년도별과 월별로 그 현황을 비교·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저자 및 출판사별 대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김태영, 백지연, 오효정(2018)은 국립세종도서관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로그를 기반으로 도서관 이용자 및 대출현황을 분석하여 이용자 그룹별 특성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세종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대출 관련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이용자의 연령, 성별, 거주지 데이터도 함께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는 새로운 내용이고 연구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라고 하겠다.

정현태(2002)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는 EU 및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서 도서관의 공정사용의 전통을 고수하면서 저작자의 대여권을 보상하는

합리적인 보상시스템을 모색하였다.

이홍용, 김영석(2015)은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고 동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전 세계 34개국¹⁾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즉, 동 제도 시행 국가 현황, 공공대출보상권 보상금의 산정기준, 보상금 재원의 출처, 보상금 수혜 대상자, 보상금 지급 대상 자료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연구자들은 전 세계 34개 시행 국가 중에서 21개국이 대출 횟수를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최준란(2017)은 세계 33개국²⁾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대출보상권의 운영 상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시행 전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통하여 공공대출보상권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 최준란은 저작자 보호와 출판업계 보호를 위해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호신(2018)은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인기대출 도서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하여 도서관에서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양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에 대한 논의와 공공도서관의 대출 분석을 연계시킨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이홍용(2019)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도서관에서의 책 무료 대출이 서점 등에서의 책 판매 감소로 이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과 도서를 대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서점 등에서 더 많은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서 이용할 경우 책을 더 구매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홍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공공대출권’ 용어 대신에 ‘공공대출보상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II. 연구 방법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저자와 출판계의 논리는 도서관에서의 책 무료 대출이 결과적으로 저작자와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

1) 조지아(Georgia)가 새롭게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 9월 현재는 총 35개국이다.

2) 최준란은 자신의 연구에서 ‘2017년 8월 현재 총 33개 국가가 입법의 형식으로 공공대출권 제도를 확보하고 실시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PLR International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plrinternational.com/res>)에 의하면 최준란의 조사 내용과 다르게 조지아(Georgia)가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8년에 그리스가 법률에 의해 공식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현재는 총 35개국이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3호)

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여 저작자에게 적절한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에 따라 공공대출보상권 제도가 도입될 경우 많은 저자에게 만족할만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특정 저자에게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고 대다수의 저자에게는 매우 적게 주어진다면 많은 저작자와 출판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의 효과는 미미하게 된다.

본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에 의한 보상이 공공도서관의 책 대출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는 것을 가정하고 공공도서관의 책 대출통계를 저자 및 출판사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관리·운영하는 ‘정보나루’³⁾에서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대출통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인 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년분 대출 현황이 아닌 5년간의 대출 현황을 저자 및 출판사별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 데이터는 ‘정보나루’에 가입된 전국의 820개 공공도서관⁴⁾이 제공한 최근 5년간의 대출통계 11억 7,830만건⁵⁾이다.

대출통계 분석은 지난 5년간 한 번 이상 대출된 책 중 대출 횟수를 기준으로 상위 200위까지⁶⁾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1차 분석 결과 상위 200위 내에 있는 책 중에서 같은 책이 목록과정에서 다른 책으로 정리된 경우가 다수 있어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최종적으로 125 책이 파악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상위 125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의 대출 경향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를 파악하고 이들 도서 중 어린이·청소년 학습만화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분석하였다. 셋째,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의 저자의 국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넷째,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의 출판사를 분석하였다.

3)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개발·구축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4) 작은도서관이 포함된 숫자임. 2018년 12월 기준 정보나루 사업에 참여한 작은도서관의 숫자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19년 9월 기준 정보나루가 공개하고 있는 참여도서관 목록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820개관이고 이중 작은도서관은 258개관으로 소개되어 있다.

5) 이 수치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누적 통계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9년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도서관이 정보나루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 수치가 달라진다. 그 이유는 새로운 도서관이 자관 데이터를 정보나루에 제공할 때 가입 시점이 아닌 그 이전의 데이터까지 소급해서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보나루에 의하면 2014년에는 전국에서 24개 도서관만이 정보나루에 대출통계를 제공하였고, 2015년에는 258개관, 2016년에는 466개관, 2017년에는 634개관 그리고 2018년에는 820개관이 자관의 대출통계를 제공하였다. 2019년 9월 현재는 845개관이 정보나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6) 정보나루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개인이 동 플랫폼에서 ‘인기대출도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내려 받고자 할 경우 전체 도서 중 대출 상위 200위, 즉 200개의 도서 목록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상에서 제한하고 있다.

III. 공공도서관의 대출 통계 분석

1.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현황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책의 저자는 누구이고, 출판사는 어디인지 그 순위를 200위까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저자 및 출판사별 대출 횟수가 매년 새로운 책의 발행과 인기도로 인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간 통계 분석이 아닌 5년간의 누적 데이터 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5년간의 대출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관리·운영하는 ‘정보나루’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데이터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820개관이 제공한 것으로 그 수는 총 11억 7,830여만 건이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200위까지의 총 대출횟수는 7,401,605회로,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출횟수(11억 7,830여만 회)의 0.63%에 해당된다. 이 1차 목록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는 조정래 작가가 쓴 해냄출판사의 ‘태백산맥’(247,827회)이고, 두 번째는 총 107,712회 대출된 현대문학에서 발행한 히가시노 게이고 저자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으로 나타났다.

<표 1> 5년(2014–2018)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1차 목록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년도	주제	대출횟수
1	태백산맥	조정래	해냄	1995	문학	247,827
2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12	문학	107,712
3	정글만리	조정래	해냄	2013	문학	81,611
4	7년의 밤	정유정	은행나무	2011	문학	79,562
5	한국사 편지	박은봉	웅진닷컴	2002–2003	역사	76,671
6	채식주의자	한강	창비	2007	문학	73,422
7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인플루엔셜	2014	철학	71,116
8	정글만리	조정래	해냄	2013	문학	67,557
9	창문넘어도망친100세노인	요나스 요나손	열린책들	2013	문학	66,504
10	정글만리	조정래	해냄	2013	문학	63,825
11	멈추면 비로소보이는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012	문학	62,606
:	:	:	:	:	:	:
22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8	문학	48,413
23	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2014	문학	47,153
24	빅픽처	더글라스 캐네디	밝은 세상	2010	문학	45,738
25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8	문학	45,248
26	어떻게 살것인가	유시민	아름다운사람들	2013	사회과학	45,005
:	:	:	:	:	:	:
33	책은 도끼다	박웅현	북하우스퍼블리셔스	2011	총류	41,452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3호)

34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8	문학	41,280
35	싸드	김진명	새움	2014	문학	41,192
36	감정수업	강신주	민음사	2013	철학	40,777
:	:	:	:	:	:	:
47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8	문학	38,653
48	덕혜옹주	권미영	다산북스	2010	문학	38,233
49	총, 균, 쇠	재데드 디아이몬드	문학사상사	2006	사회과학	38,073
50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조앤 K. 롤링	문학수첩	1999	문학	38,055
:	:	:	:	:	:	:
101	엄마 수업	법륜	한겨례	2011	기술과학	32,294
:	:	:	:	:	:	:
149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양창순	센추리원	2012	철학	29,238
:	:	:	:	:	:	:
200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 드 보통	청미래	2007	문학	27,220
합 계						7,401,605

그러나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를 200위까지 파악한 결과 일부 도서의 경우 같은 제목의 도서가 다른 책으로 두 번 이상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정래 작가의 ‘정글만리’의 경우 200위 안에 세 번(순위 3, 8, 10)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윤태호 작가의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의 경우 총 아홉 번(순위 22, 25, 34, 47 등) 포함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사서들이 같은 도서에 대한 목록(MARC)을 작성할 때 도서의 부제나 관제, 팔호, 띄어쓰기 그리고 각종 기호 등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그 방식이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른 데, 그 결과 같은 제목의 책이 다른 책으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책 제목을 기준으로 대출횟수를 파악할 경우 같은 도서가 다른 책으로 인식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⁷⁾

<표 2>는 200위권 내의 도서 중 동일 도서가 몇 권의 다른 책으로 인식되어 포함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조사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위권 내의 도서 중 총 13권의 동일 도서가 총 75번 다른 책으로 인식되어 대출횟수가 개별 산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북출판사의 ‘마법천자문’의 경우 200위권 내에서 12번 다른 책으로 인식되어 대출횟수가 개별 산정되었다. 대한교과서의 ‘내일은 실험왕’의 경우 16번, 그리고 서울문화사의 ‘코믹 메이플 스토리 수학도둑’의 경우 무려 22번이나 다른 책으로 인식되어 대출횟수가 개별 산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ISB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표 2> 200위권 내에서 동일 도서가 다른 책으로 인식된 사례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다른 책으로 인식된 횟수
1	(코믹 메이플 스토리) 수학도둑	송도수	서울문화사	2006~2015	22
2	내일은 실험왕: 본격 대결 과학실험 만화	곰돌이	대한교과서	2006~2008	16
3	마법천자문: 손오공의 한자 대탐험	스튜디오시리얼,홍거북	아울북	2005~2019	12
4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8	9
5	내일은 발명왕: 본격 대결 과학발명 만화	곰돌이	미래엔	2011~2018	8
6	고구려	김진명	새움	2011~2016	5
7	정글만리	조정래	해냄	2013	3
8	윔피키드	제프카니	푸른날개	2009~2015	3
9	태백산맥	조정래	해냄	2007	2
10	제3인류	베르나르 베르베르	열린책들	2013~2016	2
11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조앤 K. 롤링	문학수첩	1999	2
12	(대하역사만화)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휴머니스트	2005~2006	2
13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조앤 K. 롤링	문학수첩	2000	2
합계	13권				75회

따라서 1차 대출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200위권 도서 중 같은 제목의 도서가 다른 도서로 인식되어 여러 번 포함된 경우 개별 대출횟수를 같은 제목의 도서로 합산하여 2차로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목록을 만들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25권의 도서가 선정되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5년(2014~2018)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2차 목록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주제	대출횟수
1	(코믹메이플스토리)수학도둑	송도수	서울문화사	2011~2015	어학	634,068
2	내일은 실험왕	곰돌이	미래엔컬처그룹	2006~2018	어학	513,598
3	마법천자문	스튜디오시리얼	아울북	2005~2019	언어	398,737
4	미생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8	문학	343,773
5	태백산맥	조정래	해냄	1995, 2007	문학	278,751
6	내일은 발명왕	곰돌이	미래엔	2011~2018	기술과학	240,534
7	정글만리	조정래	해냄	2013	문학	212,993
8	고구려	김진명	새움	2011~2016	문학	152,261
9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외	현대문학	2012	문학	107,712
10	윔피키드	제프카니 외	푸른날개	2009~2015	문학	84,700
11	7년의 밤	정유정	은행나무	2011	문학	79,562
12	한국사 편지	박은봉	웅진닷컴	2002~2003	역사	76,671
13	채식주의자	한강	창비	2007	문학	73,422

14	미움 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외	인플루엔셜	2014	철학	71,116
15	제3인류	베르나르베르베르 외	열린책들	2013–2016	문학	70,418
16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조앤 K. 롤링 외	문학수첩	1999	문학	69,701
17	창문넘어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외	열린책들	2013	문학	66,504
18	대하역사만화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휴머니스트	2005–2006	역사	66,247
19	멈추면비로소보이는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012	문학	62,606
20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창비	2008	문학	58,403
:	:	:	:	:	:	:
50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16	문학	39,165
:	:	:	:	:	:	:
100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사사키 후미오	비즈니스북스	2015	철학	29,460
:	:	:	:	:	:	:
125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 드보 외	청미래	2007	문학	27,220
합계						7,401,605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는 1차 목록과 달리 서울문화사에서 발행한 ‘수학도둑’(634,068회)으로 나타났다. 2위는 미래엔컬쳐에서 발행한 ‘내일은 실험왕’(513,598회)이고, 3위는 아울북출판사의 ‘마법천자문’(398,737회), 그리고 4위는 위즈덤하우스의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로 나타나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어린이 학습만화로 밝혀졌다. 일반도서 1위는 전체 5위를 차지한 해냄출판사의 ‘태백산맥’이고, 2위는 전체 7위를 차지한 해냄출판사의 ‘정글만리’이고, 그리고 3위는 전체 8위인 새움출판사의 ‘고구려’로 나타났다. 4위는 전체 9위에 오른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으로 나타났다.

2. 학습만화 대출 현황

학습만화는 교육적인 내용 혹은 정보를 주 독자층인 초등학생에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그림, 즉 만화(comics)와 짧은 문장 혹은 말풍선에 담긴 대사로 설명하는 책이다. 그런데 이 학습만화는 상업성이 매우 강하여 다른 장르의 도서보다 판매가 월등히 많다. 백은지(2011, 4)에 의하면 ‘예림당의 Why? 시리즈(전체 61권)는 2010년 3천만 부⁸⁾를 돌파했고, 마법천자문(아울북)은 1,300만 부, 코믹 메이플 스토리(서울문화사)는 1,100만 부, 서바이벌 만화 과학상식 시리즈(아이세움)는 1,000만부를 각각 돌파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만화를 발간한 출판사는 학습만화를 출판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이

8) 2015년 1월 기준 6,000만 부를 돌파했다고 함.

다. 그런데 이들 학습만화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도서관에서도 열람과 대출이 많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들 학습만화를 발간한 출판사는 판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공공대출보상권이 도입될 경우 대출에 근거하여 다시 공공대출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만화의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출판사의 학습만화가 얼마나 대출되었는지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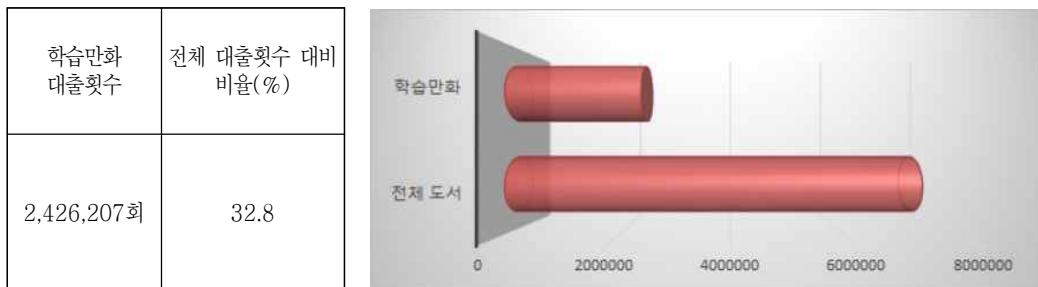
‘<표 3>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2차 목록’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125위권 내에서 어린이·청소년 학습만화가 상위 1~4위를 차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25위권 내에 학습만화가 얼마나 많이 분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5위권 내에 총 14권의 학습만화가 자리하고 있고, 이들 14권의 학습만화의 총대출횟수는 2,426,207회로 125위권 도서의 총대출횟수(7,401,605회)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125위권 내에 있는 학습만화의 대출횟수 현황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	주제	대출횟수
1	(코믹 메이플스토리)수학도둑	송도수	서울문화사	2011~2015	자연과학	634,068
2	내일은 실험왕	곰돌이	미래엔	2006~2018	자연과학	513,598
3	마법천자문	시리얼, 홍거북	아울북	2005~2019	언어	398,737
4	미생: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	윤태호	위즈덤하우스	2018	문학	343,773
5	내일은 발명왕	곰돌이	미래엔	2011~2018	기술과학	240,534
6	(대하역사 만화)조선왕조실록	박시백	휴머니스트	2005~2006	역사	66,247
7	어린이과학형사대CSI	고희정	가나	2008~2013	자연과학	30,393
8	why?신화와 전설	박연아	예림당	2012	역사	30,125
9	Why?왕자와 공주	이근	예림당	2010	역사	29,457
10	Why?왕비이야기	이근	예림당	2013	역사	28,307
11	Why?과학수사	조영선	예림당	2011	기술과학	28,160
12	Why?해부학	조영선	예림당	2013	기술과학	27,845
13	Why?장애와 과학	남준자	예림당	2013	기술과학	27,492
14	(만화로 보는)그리스로마신화	토마스불핀치	가나	2005	종교	27,471
합계	2,426,207

<표 4>에 의하면 학습만화의 대출 현황은 출판사별로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5위권 내에 있는 14권의 학습만화 중에서 예림당의 Why시리즈가 6권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나’와 ‘미래엔’이 각각 2권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출횟수로 보면 ‘서울문화사’의 수학도둑이 634,068회로 가장 많이 대출되었지만, 출판사별로 살펴보면 ‘미래엔’의 두 도서는 총 754,132회 대출되어 ‘서울문화사’보다 대출횟수가 더 많다.



<그림 1> 전체 도서의 대출횟수 대비 학습만화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3. 대출도서 저자별 현황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상위 125위권 도서를 대상으로 어떤 저자의 책이고, 그 저자는 얼마나 많은 책을 저술했는지 분석하였다. 125권의 저자를 분석한 결과 총 8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25위권 도서 중 두 권 이상을 쓴 저자는 20명이고, 이들이 저술한 책은 총 60권이다. 한편, 한 권의 도서만 쓴 저자는 65명이고, 따라서 이들이 쓴 도서는 총 65권이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인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 총 9권의 저자인데, 이들 9권의 대출횟수는 총 389,450회로 전체 도서 대출횟수의 5.2%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많은 책을 저술한 사람은 프랑스인 기욤뮈소이다. 그는 ‘내일’ 등 총 7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이들 7권의 대출횟수는 총 246,304회로 전체 대출의 3.3%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작가 정유정은 세 번째로 많은 4권의 도서를 대출 상위 125위권에 올린 저자로 밝혀졌다. 정유정의 ‘7년의 밤’ 등 총 4권의 대출횟수는 216,971회이다. 한편, 조정래 등 총 6명은 각각 3권의 도서를 대출 상위 125위권에 올렸고, 곰돌이 등 11명은 각각 2권의 도서를 대출 상위 125위권에 올린 저자로 나타났다.

<표 5> 2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상위 125위권에 올린 저자와 그 저자가 쓴 도서의 대출횟수

번호	저자	도서 수(권)	대출횟수
1	히가시노 게이고	9	389,450
2	기욤뮈소	7	246,304
3	정유정	4	216,971
4	조정래	3	520,505
5	김진명	3	226,245
6	조앤 K. 롤링	3	155,060
7	무라카미 허루키	3	112,345
8	유시민	3	110,681
9	이와이 도시오	3	101,252

10	곰돌이	2	754,132
11	한강	2	126,390
12	혜민	2	97,714
13	박웅현	2	91,963
14	설민석	2	71,160
15	미하엘 엔데	2	67,994
16	법륜	2	66,291
17	채인선	2	65,165
18	공지영	2	61,218
19	이근	2	57,764
20	조영선	2	56,005
합 계		60	3,594,609

두 권이상의 도서를 대출 상위 125위권에 올린 저자(이하 두 권 저자 집단)와 그들이 저술한 책의 대출횟수를 한 권의 도서가 대출 상위 125위권에 올린 저자(이하 한 권 저자 집단)와 그들이 저술한 책의 대출횟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권 저자 집단’의 저자는 총 20명으로 전체 저자(85명)의 23.5%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이 저술한 도서는 60권으로 전체 125권의 48%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이 쓴 도서의 대출횟수는 3,594,609회로 전체 7,401,605회의 48.6%에 해당한다. 즉, ‘두 권의 저자’의 비율(23.5%)보다 이들 도서의 대출횟수 비율(48.6%)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권 저자 집단’이 쓴 도서의 한 권당 평균 대출횟수는 59,910회로 ‘한 권 저자 집단’이 쓴 도서의 한 권당 평균 대출횟수 58,569회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대출보상금이 대출횟수를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많은 책을 쓰고 인기가 많은 저자에게 보상금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인기 작가의 경우 시중에서 이들 작가의 책이 많이 판매되어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여기에 더해 추가로 더 많은 보상금이 이들 저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대출보상금 수혜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대출도서 저자의 국별 현황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의 저자는 내국인인지 아니면 외국인인지 분석하였다. 대출 순위 125위권 도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저자 수는 총 85명인데 이중 내국인은 50명(58.8%)이고, 이들이 쓴 도서는 총 69권(55.2%)이다. 반면에 외국 작가는 35명(41.2%)이고, 이들이 쓴 도서는 총 56권(44.8%)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국내외 저자와 도서 수 및 도서의 대출횟수 현황

구분		철학총류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언어	문학	역사	합계 (%)
국내	저자 수	9	.	1	3	4	1	31	8	50명 ⁹⁾ (58.8)
	도서 수	9	.	1	3	5	1	40	10	69권 (55.2)
	대출횟수	309,285	.	45,005	1,178,059	356,325	398,737	2,436,220	406,638	5,130,269 (69.3)
국외	저자 수	3	1	1	.	1	.	28	1	35명 (41.2)
	도서 수	3	1	1	.	1	.	49	1	56권 (44.8)
	대출횟수	142,804	27,471	38,073	.	28,517	.	1,994,514	39,957	2,271,336 (30.7)
합계	저자 수	12	1	2	3	5	1	59	9	85명 (100)
	도서 수	12	1	2	3	6	1	89	11	125권 (100)
	대출횟수	452,089	27,471	83,078	1,178,059	384,842	398,737	4,430,734	446,595	7,401,605 (100)

125위권 내에 자리하고 있는 이들 도서의 대출횟수를 저자의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국내 저자의 도서는 총 5,130,269회(69.3%) 대출되었고, 외국 저자의 도서는 총 2,217,336회(30.7%)로 나타났다. 종합 정리하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지난 5년간 대출된 도서 중 외국인 저자의 비율은 41.2%이고, 이들 외국인의 도서는 전체의 44.8%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도서의 대출횟수는 전체의 30.7%로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에서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 여러 나라는 외국인 저자 등에게도 공공대출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고 대출횟수를 기준으로 외국인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일본인 저자에게도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출판 및 저작권 단체의 요구대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저자는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일본인 저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공평한 상황이 초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 저자 중 일본인은 몇 명인지 분석하였다. 대출 순위 125위권 내에 있는 도서의 저자 중 외국인은 총 35명이고, 이중 일본인은 9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25.7%를 차지한다. 한편, 35명의 외국인이 쓴 도서는 총 56권인데 이중 일본인 저자의 도서는 20권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인 저자가 쓴 도서의 대출횟수는 전체 외국인 도서의

9) 저자 수를 주제별로 합산하면 57명이지만 동일한 저자(7명)가 주제가 다른 두 권 혹은 세 권의 책을 저술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자 수는 50명이다.

대출횟수(2,271,336회)의 36.5%(829,453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일본인 저자가 쓴 도서의 대출횟수 현황이다.

분석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도서의 경우 특정 저자의 도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경우 본인이 쓴 도서 총 9권이 대출 순위 125위권에 자리 잡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와 이와이 도시오의 경우 각각 세 권이 대출 순위 125위권 내에 들어있다.

한편, 본 연구는 대출 순위 125위 내에 있는 도서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출순위 125위권 내에 있는 도서 중 외국인 저자는 총 35명(37.6%)이고, 이들이 저술한 도서는 총 56권(44.8%)이다. 그리고 이들 도서의 대출횟수는 총 2,271336회(30.7%)이다.

<표 7> 일본인 저자가 쓴 도서의 대출횟수 현황

순위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년도	주제	대출횟수
1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12	문학	107,712
2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인플루엔셜	2014	철학	71,116
3	내 이름은 오빠	아이하라 히로유키	밝은미래	2009	문학	53,599
4	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2014	문학	47,153
5	용의자 X의 혼신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06	문학	42,000
6	1Q84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2010	문학	40,756
7	박사가 사랑한 수식	오가와 요코	이레	2004	문학	40,633
8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하야마 아마리	위즈덤하우스	2012	문학	39,352
9	상실의 시대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사	2008	문학	37,518
10	바다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북뱅크	2014	문학	35,120
11	여자 없는 남자들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2014	문학	34,071
12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북뱅크	2009	문학	33,839
13	매스커레이드 호텔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12	문학	32,595
14	지하 100층짜리 집	이와이 도시오	북뱅크	2011	문학	32,293
15	한여름의 방정식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2014	문학	32,128
16	공허한 십자가	히가시노 게이고	자음과모음	2014	문학	31,603
17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사토 와키코	한림	1991	문학	31,411
18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사사키 후미오	비즈니스북스	2015	철학	29,460
19	몽환화	히가시노 게이고	비체	2014	문학	28,871
20	악의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2008	문학	28,223
합계	20권	9명	13개사	.	.	829,453

5. 대출도서 출판사 현황

대출 상위 125위권 도서를 대상으로 그 도서의 출판사를 분석하였다. 125위권 도서를 발간한 출판사는 총 62곳으로 한 출판사당 평균 2.02권의 도서를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총 62곳의 출판사 중 두 권 이상의 도서를 발간한 출판사는 27곳(43.5%)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35곳(56.5%)은 한 권만 발간하였다.

한편,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5위권 도서 중 두 곳의 출판사가 각각 8권을 발간하였는데, 창비가 발간한 8권의 총 대출횟수는 361,462회로 가장 많다. 같은 8권을 발간한 밝은세상의 8권의 총 대출횟수는 292,042회이다. 문학동네와 예림당 출판사는 각각 여섯 권을 발간하였고, 현대문학은 다섯 권을 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나무 등 4개 출판사는 각각 네 권의 도서를 발간하였고, 해냄 등 5개 출판사는 각각 세 권의 도서를 발간하였다. 두 권의 도서를 발간한 출판사는 미래엔 등 13개 출판사로 밝혀졌다.

<표 8> 대출 상위 125위권 도서 중 2권 이상을 발행한 출판사

번호	출판사	발행 권수	대출횟수
1	창비	8	361,462
2	밝은세상	8	292,042
3	문학동네	6	232,425
4	예림당	6	171,386
5	현대문학	5	249,695
6	은행나무	4	216,971
7	문학수첩	4	183,575
8	길벗어린이	4	129,215
9	한겨례	4	127,509
10	해냄	3	520,505
11	새움	3	226,245
12	다산북스	3	116,509
13	김영사	3	113,262
14	북뱅크	3	101,252
15	미래엔	2	754,132
16	위즈덤하우스	2	383,125
17	열린책들	2	136,922
18	쌤앤파커스	2	95,123
19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2	91,963
20	민음사	2	91,094
21	재인	2	79,281
22	아름다운 사람들	2	77,889
23	문화사상사	2	75,591
24	토토북	2	74,929
25	자음과 모음	2	73,840
26	재미마주	2	59,788
27	가나	2	57,864
합 계		90	5,093,594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권 이상 발간한 출판사는 27곳으로 전체의 43.5%이고, 한 권을 발간한 출판사는 35곳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한다. 그런데 두 권 이상 발간한 27개 출판사 도서의 총 대출횟수(5,093,594)의 비율은 68.8%로 한 권을 발간한 35개 출판사 도서의 총 대출횟수(2,308,011)의 비율 31.2%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 그 이유는 두 권 이상 발간한 출판사의 도서가 총 90권으로 한 권을 발간한 출판사의 도서 35권보다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한편, 한 권만 발간한 출판사의 한 권당 평균 대출횟수는 65,943회로 두 권 이상을 발간한 출판사의 한 권당 대출횟수 56,595회보다 많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에 대한 인기도와 그 도서의 대출횟수가 출판사별로 큰 차이가 없이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결과는 앞의 ‘III 3. 대출도서 저자별 현황’에서 드러난 작가에 따라서 그 인기도와 그 도서의 대출횟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과 상반된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저자에 따라서는 대출 횟수에 큰 차이가 있지만 출판사에 따라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판사마다 최소한 인기 있는 도서를 한 두 권씩 발간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래엔 출판사의 경우 비록 두 권의 책만이 대출 상위 125위 내에 있지만, 이 두 권의 책은 다른 어떤 출판사의 책보다 많은 754,132회의 대출을 기록하였다. 그 이유는 어린이용 학습만화 ‘내일은 실험왕’과 ‘내일은 발명왕’의 대출로 인한 것이다.

국가통계포털(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판업체 수는 27,132개이다. 이중 대한출판문화협회(2018)에 자사 발간물을 납본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는 7,726개사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출판사 대비 125위권 내 도서를 발간한 출판사의 수(총 62곳)와 비율(0.8%)을 살펴보면 그 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공공대출보상권 제도가 시행된다면 62개 출판사는 이미 인기 도서를 발간·판매하여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 제도에 의한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결국 공공대출보상금 수혜에 있어서 출판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겠다.

정보나루에 의하면 아래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의 장서 중 75%(7,121만권)는 1년에 단 한 번도 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비율은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해 왔다.

<표 9>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중 미대출 현황¹⁰⁾

연도	전체 소장 도서 수(권)	미대출 도서 수(권)	소장 도서수 대비 미대출 비율(%)
2014	74,135,831	52,321,841	70.6
2015	79,005,513	56,440,176	71.4
2016	84,389,742	60,950,178	72.2
2017	89,738,759	65,956,878	73.5
2018	94,926,695	71,212,970	75.0

10) 연구자의 요청에 의해 정보나루 담당자가 제공하였음.

결론적으로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의 25%만 한 번 이상 대출되고 75%의 도서는 대출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75%의 비인기 도서를 발간한 출판사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파악한 125위권 인기 도서를 발간한 출판사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판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하겠다.

IV. 맷음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의 실효성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보나루’에서 관리하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820개관의 대출기록 11억 7,830만건을 토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125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도서의 저자, 저자의 국적, 출판사를 분석하고, 더불어 이 도서 중 학습만화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125권의 총 대출횟수는 7,401,605회로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의 대출횟수(11억 7,830만회)의 0.63%에 해당된다.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는 ‘코믹 메이플 스토리 수학도둑’(634,068회)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내일은 실험왕’(513,598회), 세 번째는 ‘마법천자문’(398,737회), 그리고 네 번째는 ‘미생: 아직 살아 있지 못한 자’(343,773회)이다. 그런데 이들 네 권은 모두 어린이·청소년 학습만화로 밝혀졌다. 일반도서 1위는 전체 대출 순위 5위를 차지한 ‘태백산맥’(278,751회)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125권 중에서 14권은 어린이·청소년 학습만화로 밝혀졌다. 이들 14권의 총 대출횟수는 2,426,207회로 전체 125권의 총 대출횟수(7,4010,605회)의 32.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조사 결과 학습만화의 출판사 쏠림현상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권의 학습만화 중에서 예림당 출판사의 도서가 6권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예림당 도서의 경우 대출횟수는 많지 않았다.

셋째,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 125권의 저자를 분석한 결과, 그 수는 총 8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25권에 포함된 도서를 두 권이상 저술한 사람은 20명이고, 이들이 쓴 책은 총 60권이다. 인기대출 도서 125권 중 한 권만 쓴 사람은 65명이고, 이들이 쓴 책은 총 65권이다.

일본인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의 도서는 총 9권이고, 프랑스인 저자 ‘기욤뮈소’의 도서는 총 7권이다. 우리나라 작가 정유성은 세 번째로 많이 대출된 도서를 저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권이상 저술한 저자는 총 20명으로 전체 85명의 23.5%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이 저술한 도서는 총 60권으로 전체 125권의 48%에 해당된다. 두 권이상 저술한 저자의 도서는 한 권당 대출횟수가 평균 60,921회로 한 권만 저술한 저자의 도서의 평균 대출횟수 57,735회보다 많았다.

넷째, 대출 상위 125위권 도서를 저술한 저자의 국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저자는 50명

(58.8%)이고, 이들이 저술한 도서는 총 69권(55.2%)이다. 외국 저자는 35명(41.2%)이고 이들의 도서는 총 56권(44.8%)으로 내국인 저자는 외국인 저자 수보다 20%가까이 많지만 국내외 저자가 저술한 도서 수의 차이는 10% 내외이다. 국내 저자는 1인당 평균 1.38권을 저술한 반면, 외국 저자는 1인당 평균 1.6권을 저술하였다. 한편, 국내 저자가 쓴 도서의 대출 횟수는 5,130,269회로 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외국 저자가 쓴 도서의 대출 횟수는 2,271,366회로 30.7%에 해당한다.

외국인 저자 35명 중 일본인은 총 9명(25.7%)이고, 이들이 저술한 도서는 20권으로 전체 외국인 도서의 35.7%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인 저자가 쓴 도서는 총 829,453회 대출되어 외국인 도서 총 대출 횟수 2,271,336의 36.5%에 해당한다.

한편 일본인 저자 9명은 국내외 전체 저자 수 85명의 10.6%를 차지한다. 그런데 일본인 저자가 쓴 도서는 총 829,453회 대출되어 전체 대출 횟수 7,401,605회의 11.2%를 차지한다. 따라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가 시행되고 대출 횟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전체 보상금의 일부를 일본인 저자에게 주어야 한다. 현재 일본은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저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이 제도는 우리에게 불공정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대출 상위 125위권 도서의 출판사를 분석한 결과 총 62곳이었다. 한 출판사당 평균 2.02권을 발간하였다. 그런데 총 62곳의 출판사 중 두 권 이상을 발간한 출판사는 27곳(43.5%)이고, 나머지 35곳(56.5%)은 한 권만 발간하였다. 두 권 이상 발간한 27개 출판사 도서의 총 대출 횟수 비율은 68.8%로 한 권을 발간한 35개 출판사 도서의 총 대출 횟수 비율 31.2%보다 두 배 정도 높았는데, 그 이유는 두 권 이상 발간한 출판사의 도서가 총 90권으로 한 권을 발간한 출판사의 도서 35권보다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한편, 한 권만 발간한 출판사 도서의 경우 한 권당 평균 대출 횟수가 65,943회로 두 권 이상을 발간한 출판사의 한 권당 대출 횟수 56,595회보다 더 많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에 대한 인기도와 그 도서의 대출 횟수가 출판사별로 큰 차이 없이 고른 분포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각 도서의 대출 횟수를 저자 별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 개별 도서관이 구입한 도서에 대한 목록 작성 과정에서 동일 도서가 별개의 도서로 등록되어 국가차원에서 저자별 대출 횟수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대출 횟수 산정과 같은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연구 결과 두 권 이상을 저술한 저자의 도서가 한 권만 저술한 저자의 도서보다 한 권당 평균 대출 횟수가 더 많았다. 일반적으로 인기작가의 책이 더 많이 판매되는데, 만약 공

공대출보상권 제도가 시행되고 대출횟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이를 작가는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된다. 결국 공공대출보상금 수혜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대출 상위 125위권 도서의 저자 중 외국인은 41.2%이고, 이들이 저술한 도서의 대출 횟수는 전체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횟수를 기준으로 공공대출보상금을 지급 할 경우 외국인에게도 전체 보상금의 상당한 액수를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공공 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을 위한 주장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125위권 내의 외국 저자의 도서들은 이미 출판유통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판사들은 외국작품을 출판하기 위해 많은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공대출보상권 제도까지 시행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많은 외화 유출이 발생 될 수도 있다.

특히, 외국인 저자 중 일본인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공공대출보상권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들에게도 대출횟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병규. 2017. 신문 빅데이터를 통한 신중국 60년 시기의 어휘 사용 양상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8(1): 179–207.
- 김완종. 2015. 유행성 질병이 공공도서관의 대출 책수에 미치는 영향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2(4): 273–287.
- 김태영, 백지연, 오효정. 2018. 빅데이터 로그 기반 도서관 이용자 및 대출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357–388.
- 『도서관법』. 2018. 법률 제15167호.
- 『도서관법시행령』. 2019. 대통령령 제29950호.
- 도서관정보나루 홈페이지. <<https://www.data4library.kr/>> [인용 2019. 8. 1].
- 백은지. 2011. 성공한 학습만화 사례분석.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5: 4–11.
- 이종엽. 2011. 『베스트셀러와 도서관 대출과의 상관관계 분석—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현정보학과.
- 이호신. 2018.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인기대출도

- 서와 베스트셀러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현정보학회지』, 52(1): 179–202.
- 이홍용, 김영석. 2015.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355–377.
- 이홍용. 2019.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현정보학과.
- 정현태. 2002.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운영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19–35.
- 최준란. 2017. 저작권보호를 위한 공공대출권(PLR)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30: 181–197.
- 허선, 정연경. 2014. 대출기록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4): 187–207.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Eun-Ji. 2011. “An Analysis of Successful Comics for Learning.”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of Cartoon & Animation Studies, May 2011: 4–11.
- Choi, Junran. 2017. “A Study on Public Lending Right for Copyright Protection.” *The Journal of Global Cultural Contents*, 30: 181–197.
- DATA FOR LIBRARY Home Page. <<https://www.data4library.kr/>> [cited 2019. 8. 1].
-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ies Act. 2019. Presidential Decree No. 29950.
- Heo, Sun and Chung, Yeon Kyoung. 2014. “A Study on Public Libraries User Behaviors Based upon Circulation Data in Gangseo and Yangcheon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4): 187–207.
- Joung, Hyun-Tae. 2002. “An Overview and Countermeasure Study on the Remuneration System of Public Lending Right.”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3(4): 19–35.
- Kang, Byeong Ku. 2017. “A Study on Vocabulary Time Series Information in 60 Years of the New China through Newspaper Big Data.” *The Journal of Humanities*, 38(1): 179–207.
- Kim, Tae-Young, Back, Ji-Yeon and Oh, Hyo Jung. 2018. “An Analysis of Library User and Circulation Status based on Bigdata Logs – A Case Study of National Library of Korea, Sejong.”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357–388.

- Kim, Wan-Jong. 2015.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Epidemic Disease on the Number of Books Checked Out of the Public Libraries : Based on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4): 273–287.
- Lee, Heung Yong. 2019. *An Empirical Study on the Public Lending Right Program*. Ph.D. dis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Korea.
- Lee, Heung Yong and Kim, Young-Seok. 2015.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355–377.
- Lee, Hosin. 2018. "A Preliminary Research for Empirical Analysis on the Validity of Public Lending Right – Focus on the Comparison between Popular Borrowing Books and Best Seller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179–202.
- Lee, Jong Youp. 2011.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 bestseller and the most frequently circulated books in libraries : focusing on a public library and an academic library*. Ph.D. dis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Korea.
- Libraries Act. 2018. Act No. 15167.